

이번 사기 사건의 주범인 박윤창과 그 일당들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의 연락(통화 및 SNS)을 통해 본인이 부득이하게 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자신은 이를 정상적으로 수습하고자 노력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 수습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.

또한 마장동 실 유통업자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또는 전체 보상을 전제로 고소 취하 또는 불고소, 타 피해자들의 본인 고소 진행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중복 담보물인 냉동 축산물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매각 방해 등 피해자들의 사고 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

디에셋펀드 투자자 여러분, 금번 사고는 박윤창과 그 일당들이 오프라인 투자를 중심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기획한 사기 사건이며 디에셋펀드는 이 과정에 일절 관여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. 수사 과정에서 디에셋펀드의 대표인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

다만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윤창과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과 자금 회수를 위해 타 피해자들과 공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박윤창과 그 일당들에 대한 고소를 저희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